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늘어난다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주요 대기업 사회공헌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17개 기업은 이를 위해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GS, 농협, 한국조선해양, KT, CI, 두산 효성, 한국투자금융, 하림, OCI, IBK 기업은행 등 17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 고령자, 자녀를 가진 여성 및 청년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직장에서 안심하고

## 고용노동부, 17개 대기업 사회공헌 책임자와 간담회

장애인·고령자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동 선언문에 참여한 17개 기업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해나가고,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KT, IBK 기업은행 등 6개 기업은 포용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 사례를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취업·창업 지원, LG와 IBK기업은행은 장애인과 자녀를 가진 직원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SK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험, KT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공유했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대기업들



이재갑(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대기업 사회공헌 책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참여 기업들의 모범 사례가

우리나라 기업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나주시 '사회적 농업' 화탑 허브농장 눈길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사회적 약자 돌봄·치유 서비스 제공



나주시는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해 세지면 화탑 마을에 조성된 '화탑 허브농장'을 본격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 분야 생산·체험활동 통해 돌봄, 교육, 심신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1일 마을 주민과 함께 화탑 허브 농장에서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허브 재배 교육을 실시, 원예 체험을 통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허브 농장 관계자는 "매주 1회 허브재배, 허브 원예 상품 제작, 팜파티 등 다양한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생소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 "장애인 고용, 기업 의지의 문제"

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촉구

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이 대기업 사회공헌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년째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달라"며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조 이사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주요 대기업 사회공헌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용성장 간담회'에서 "장애인고용의무는 학교로 빔대 말하면 교양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라며 같이 말했다.

조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

다"리면서 "내년이면 장애인고용의무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무고용률인 2.90%에 못 미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의지의 문제"라면서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30년 동안 공단에서 축적된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 고용에 대한 절차, 직무 발굴, 기업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믿고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스

## 따뜻한동행, 첨단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모집

역량 갖춘 장애 청소년·청년 발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장애 청소년과 청년에게 개인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후원하고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부터 한미글로벌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분야별 역량 있는 장애 청소년과 청년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다.

따뜻한동행은 지난해까지 55명의 장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안구마우스 스포츠 의족 수전동 겸용 기립형 휠체어 등을 포함해 5억5000여 만원 상당의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했다.

올해 역시 과학기술 예체능 사

회교육, 아공(청소년)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장애인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되며, 따뜻한동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1부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추천서와 관련 제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따뜻한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 따뜻한동행 이사장은 "사회 리더로서 자질이 충분한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자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장애인들이 단지 장애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 동물 응급처치 교육 '수화' 동영상 보급

소방청, 장애인 활동 가능한 영상 제작·보급

소방청은 동물 응급처치 교육 수화 동영상을 제작·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을 넣은 영상을 보급한 데 이어 수화까지 수록한 것이다. 화면 하단 오른쪽에 한국농어인협회 소속 수화 통역사가 출연한다.



이 영상은 총 8분 분량으로 동물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복부

뉴스스



중증장애인의 단편영화 '하고 싶은 말, WHAT I WANT TO SAY'의 한 장면.

## 중증장애인의 영화 토론토 영화제 간다

스마트폰 단편 비경쟁부문 초청

경기 용인시 마북동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단편영화 '하고 싶은 말, WHAT I WANT TO SAY'가 '제8회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에 초청돼 비경쟁부문 개막작으로 현지 시각 21일 오후 7시 상영된다.

이 영화는 마북동 우리동네 장애인 평생교육학교의 김종민 감독·김호중 작가·최우준 배우 등 중증장애인 6명이 직접 제작했다.

몸이 뒤틀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뇌성마비의 주인공이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두 달 간의 영상제작과정 수업을 수강한 뒤 3주에 걸쳐 6분 가량의 영화를 만들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